

푸른솔 학생식당 김수현 매니저 | 8면 사람

지난 7월에 개최된 '전국 대학생협조리명장 경연대회'에서 최 우수상을 받은 우리학교 푸른솔 학생식당의 김 매니저를 만나 학생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주과학 꿈나무로 가득했던 '천문대 공개 관측회' | 6면 현장

과학 꿈나무들이 공개 관측회에서 더 큰 꿈을 키우게 된 현장과 우리학교 천문대의 위상을 짚어본다.

제 1732 호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대학주보

QS 40위
(아시아대학평가)

논문 인용
큰 폭 상승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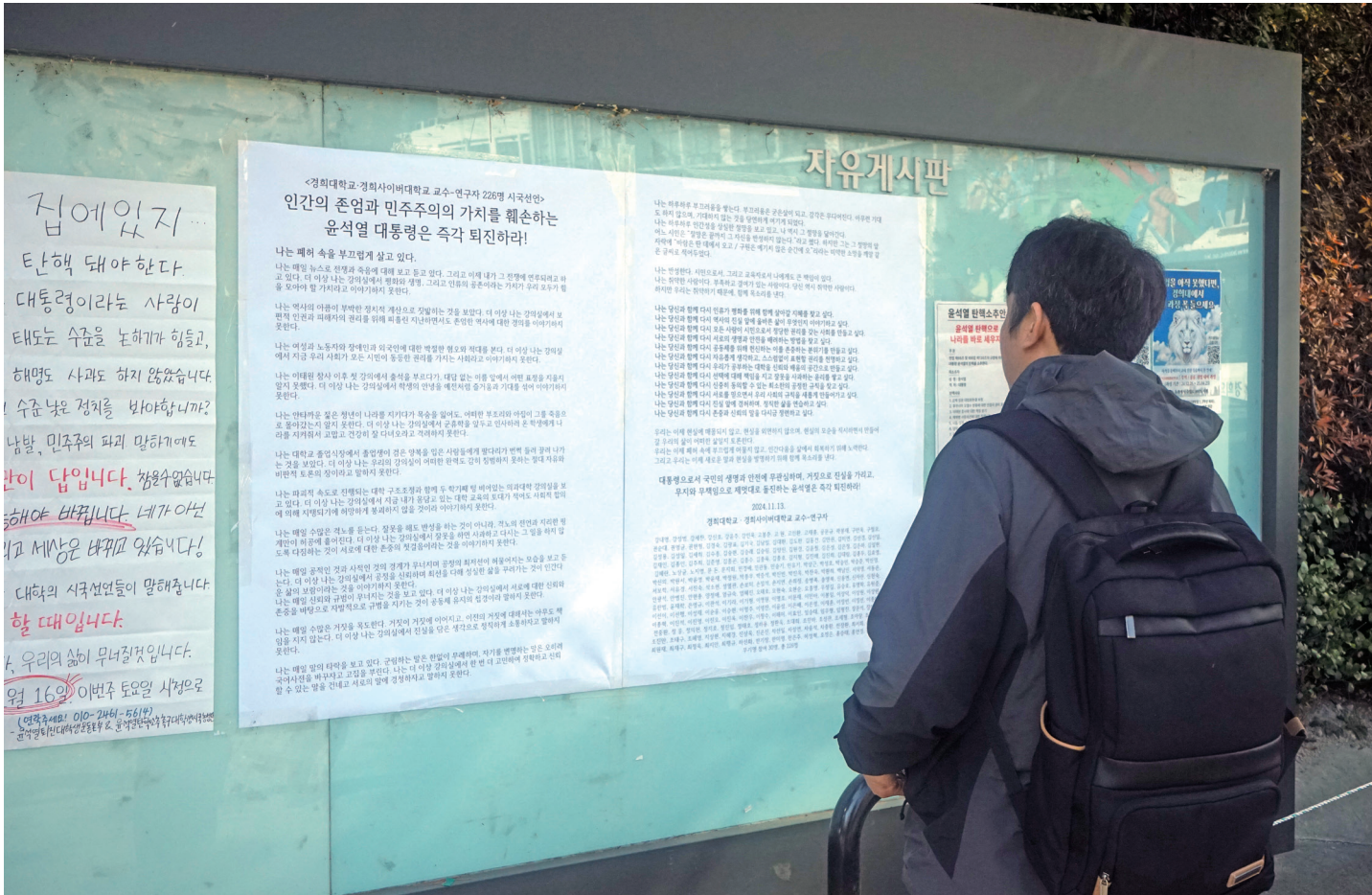
우리학교가 '2024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작년보다 두 계단 하락한 40위를 기록했다. 다만 총점은 100점 만점에 77.5점으로 전년 대비 9.4점 상승했다. 총점이 올랐음에도 순위가 하락한 이유는 타 대학 총점이 작년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부문은 '논문당 인용 횟수'였다. 우리학교 논문당 인용 횟수는 QS 기준으로 12.3회다. 전년보다 0.6회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FWCI가 높은 논문을 쓴 교수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FWCI는 상대적인 논문 피인용 지수로, FWCI가 1.1이면 세계 평균보다 10% 더 많이 인용됐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높은 상승 폭을 보인 '기업체 평판(Employer Reputation)' 항목에서 80.1점(작년63.6점)을 받았다. 해당 항목은 전 세계의 학계 종사자 10만 명과 산업계 종사자 5만 명의 평판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미래인재센터는 "설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해외 동문의 활동과 참여도 중요하다"라며 외국인 학생 동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유일하게 점수가 하락한 부문은 국제연구 네트워크 항목이었다. 작년 대비 국제공동연구 자체는 늘었지만 '국제연구 네트워크' 항목의 평가법상 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다른 대학 순위는 ▲연세대 9위 ▲고려대 13위 ▲카이스트 15위 ▲성균관대 16위 ▲서울대 18위 ▲한양대 19위 ▲포항공대 22위 순이다.

한편 지난 19일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는 전년과 동일하게 6위를 기록했다. 우리신문은 부문별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분석 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



서울캠 노천극장 게시판에 시국선언문이 부착됐다. 지나가던 한 학생이 시국선언문을 읽고 있다.

(사진=조병연 기자)

우리학교 교수 · 연구자 226명 시국선언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지난 13일 우리학교 및 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226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우리학교 시국선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후로 발표된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중 최대 규모다. 우리학교 시국선언 이후 고려대, 부산대, 국민대 등 전국 주요 대학에서도 교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시국선언문은 서울캠 노천극장 게시판, 청운관 로비 게시판을 포함해 교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대자보가 부착됐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교수·연구자 226명은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개입 시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 ▲의대 증원 등 현 정권 하에 일어난 일들을 열거했다.

이들은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갖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은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힌다며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 흘린 지난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또 ‘채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균형을 잃고 인사를 해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또 여러 사안과 관련한 현 정권의 태도를 지적하며 교육자로서 갖는 고충도 고백했다. 이들은 윤대통령을 향해 “잘못을 해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노의 전언과 지리한 핑계만이 허공에 흩날린다”며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잘못을 하면 사과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또 현 정권에 대해 “거짓이 거짓에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진실을 담은 생각으로 정직하게 소통하자고 말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은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유원준(사학) 교수는 “열흘 정도 전부터 교수들 사이에서 ‘선생으로 살 애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니 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우리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우리학교 교수들은 이번 시국선언이 학내를

넘어 타학교 교수집단과 정치계까지도 자극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송영복(스페인어학) 교수는 200명이 넘는 참여 규모에 대해 “사태가 그 어떤 때보다 엄중하다는 뜻”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영향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교수 또한 “정치권도 아마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이라며 “226명이 참여한 만큼 다른 학교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추후 행동에 대해 교수 간에 정해진 계획은 없다. 유 교수는 “추후 계획은 따로 있지 않다”며 “상황 봐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 교수는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부터라도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